

문학번역에서 대화문의 인용표현에 기반한 번역 문체 평가 논의

구상분(독립연구자)

1. 서론

Hemingway(1932)는 자신의 문체를 ‘빙산이론(Iceberg theory)’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작가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빙산의 표면처럼 전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일부를 전달한다. 작가는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을 생략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는 문체를 구사하며, 독자는 작가의 그러한 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Hemingway, p. 192). 빙산이론을 ‘생략이론(theory of omission)’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작가와 달리 Hemingway가 표현을 생략하거나, 간결하고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Beegel, 1986; McPhee, 2015). 필자는 그의 대표작 『The Old Man and the Sea』(이하 ST)에서 대화문에 사용된 ‘인용표현생략(zero quotatives)¹⁾’을 중심으로 그의 문체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ST의 문체 특성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와 전달 전략을 평가하고자 한다. Mathis와 Yule(1994)의 용어 ‘zero quotatives’에 대해 적절한 번역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용표현생략²⁾’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분석

1) Holt(2007)는 같은 개념으로 ‘연기(演技, enacting)’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zero quotatives’에 대한 번역어를 ‘인용표현생략’으로 한 것은 한 심사위원의 조언

을 지원하는 기본 장치로서 Goffman(1981)의 ‘관계 설정(footing)’³⁾ 개념을 채택하여, ST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설정 변화, 이에 따른 프레임과 대화톤의 변화를 파악할 것이다. 작가의 문체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ST에 존재하지만, 필자는 ST에서 특징적으로 빈번히 등장하는 인용표현의 생략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설정 개념을 사용하여 생략된 인용표현이 대화문에서 관계 설정의 변화, 대화톤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번역가는 작가의 문체를 TT 독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ST에서 사용된 인용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문체 전달에서 인용표현의 생략의 문제는 생략기제의 번역이라는 번역 전략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한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지만, 강동희(2023)는 종전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문학번역에서의 생략과 환원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문학번역에서 ST의 생략기제를 TT에서 보존 또는 환원기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ST에서 분석대상 대화문은 총 189개인데 그 중 인용표현이 생략된 대화문이 103개, 일반 인용표현이 있는 대화문이 86개로서 전자의 빈도가 매우 높다. 인용표현이 연속적으로 생략되는 현상이 빈번한데, 2회 연속 생략이 7회, 3회 연속 생략은 4건, 4회 및 5회 연속 생략은 각각 5건, 6회 연속 생략은 2건, 8회 연속 생략이 1건 발견되었다. 필자는 ST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이러한 인용표현의 생략이 작가의 문체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용표현은 인용문의 화행을 해석하거나 인용문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는 등 대화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용

에 따른 것이다.

3) Footing과 관련된 번역어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유현빈(2022)의 ‘관계 설정’을 선택하였다.

표현생략이나 일반 인용표현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인용문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Mathis와 Yule(1994)이 일상 대화에서 발견되는 전달동사와 화자를 생략한 직접화법을 분석하여 도입한 인용표현생략 개념과 상호작용에서 대화참여자가 자기 발언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기반한 Goffman(1981)의 관계 설정 개념을 적용하기로 한다.

2.1 문학번역에서 생략과 환원

강동희(2023)는 노한 문학 번역에서 원문에서 대화문의 생략 기제가 번역문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분석대상 문장 중 90%가 ST의 생략 기제를 TT에서 그대로 보존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을 환원해 번역하였다(p. 272). 따라서 그는 노한 번역 시 ST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번역가는 작품의 맥락과 화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 생략을 보존할지, 아니면 생략된 문장 성분을 명시화하여 환원시킬지 번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p. 272). 강동희가 분석대상으로 한 ST는 생략기제가 적용된 경우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화에는 생략기제가 적용된 대화문과 생략기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화문이 함께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생략기제 대화문만을 다룬다면, 동일 ST에 포함된 생략기제 미적용 대화문에 대해 TT에서 생략기제를 적용할 경우, 문체 전달에서 ST의 생략기제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인 성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서 다수의 작품을 ST로 한 연구 방식보다는 단일 작품을 ST로 선택하여 깊이 있게 두 유형의 대화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인용표현생략

화자가 이전 대화를 전달할 때 축어적 기록을 생성하지 않고, 대화참여자들 위해 대화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Tannen, 1986, p. 311). 그 결과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태도까지 전달되는 재창출된 상호작용을 직접화법 형식으로 제시하게 된다(Yule et al., 1992, p. 248). 현대 영어에서 이러한 구성

대화문(constructed dialogue)⁴⁾이 동사 *go, be like, be* 및 *say*와 함께 사용되거나, 화자와 인용동사가 생략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Yule et al., 1992, pp. 248-249). Mathis와 Yule(1994)은 전달동사나 귀속되는 화자가 없이 직접 발화가 전달되는 경우, 인용표현생략이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였다(p. 63).

인용표현생략이 극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Mathis와 Yule(1994)의 논의를 따라, 필자도 ST에서 인용된 대화문이 화자와 인용동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 극적 효과를 위해 인용표현생략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ST에서 구성대화문의 전달자는 내레이터이며, 등장인물은 발화가 인용되는 화자가 된다. 상위화용적 관점에서 ST 대화문의 전달자인 내레이터가 인용표현생략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청자(ST 독자)에 대한 화자(내레이터)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⁵⁾. 따라서 내레이터에 의한 인용표현생략의 사용은 등장인물의 대화에 대해 독자가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극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 전통적인 문법적 관점에서 직접화법형식은 ‘전달하기(reporting)’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되지만, 실제 대화상황에서는 이 기능과 대조를 이루는 ‘연기(performance)’라는 일반적인 효과가 존재하므로, 인용표현을 생략함으로써 완전한 인용표현 형식이 존재할 경우 쉽게 생성할 수 없는 극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Mathis & Yule, 1994, p. 67). 아래 <예시 1>은 인용표현생략이 생성하는 극적 효과를 예시하는 대화문이며, 여기서 인용표현생략은 전달되고 있는 상호작용의 긴급성⁷⁾을 반영한다.

<예시 1>

Maya: she comes over and she's like: "I ran over here" and I'm like:

-
- 4) 전달 화자가 피전달 화자의 발화를 재구성하는 현상에 대해서, constructed dialogue 외에 pseudoquotation, indirection, represented thought, palying a part 등 여러 용어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제시되었다(Mathis & Yule, 1994, p. 63).
- 5)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성범과 홍승진(2009)의 논의를 문학작품 내에서의 상황에 적용하였다.
- 6) Tannen(1986)은 구성대화문의 극적 효과 중 ‘생생함(vivid)’을 언급하였다(p. 327).
- 7) 생략은 발화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게 친밀감이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이성범과 홍승진, 2009, p. 77).

“Why?” *g*: “I’m not gonna go with Sara because you’re upset with me” (p. 67) * 밑줄은 필자가 추가하였음.

<예시 1>의 등장인물은 Maya와 Leon이며, 둘은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Maya와 Leon은 전화로 말다툼을 했는데, 거기서 Maya는 최근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Leon을 비난했다. <예시 1>에서 현재 화자인 Maya가 청자인 Sara에게 대화 속 인물인 Leon이 자신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인용표현생략을 사용함으로써 이처럼 극적 효과를 일으키고, 상호작용의 한 측면을 도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Haiman(1983)에 따르면, 두 표현 간의 언어적 거리는 그들 간에 존재하는 음절 수로 정의할 수 있다(p. 781). <예시 1>에서 인용표현생략처럼 언어적 거리를 생성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Maya의 질문 *Why?*와 Leon의 답변 *I’m not gonna go with Sara because you’re upset with me*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없게 된다. 인용표현생략의 사용으로 두 표현 간의 거리가 감소되고 긴박성이라는 극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Mathis & Yule, 1994, pp. 67-68).

2.3 관계 설정

Goffman(1981)의 ‘관계 설정’ 개념은 대화참여 프레임워크 내에 기반을 둔다. 그는 관계 설정을 “대화에서 대화참여자가 자신과 다른 참여자에 대해 정렬(alignment)하는 것으로, 대화참여자가 발화의 생산과 수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정의했다(p. 128). Goffman(1981)은 대화참여자의 상호작용에서 화자와 청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화자-청자 구분에 의한 화자 개념에 대해, 어떤 발화가 전달될 때 현재 말을 하는 주체(Animator), 전달되는 발화 내용을 구성한 저자(Author), 그리고 발화를 통해 의견이나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주역(Principal) 세 가지 지위에 따라 화자를 세분화했다(이진현, 2023, p. 129). 화자는 여러 가지 말의 형태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다르게 취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자기 생각을 스스로 구성한 말로 전달하면 말하고 있는 주체, 말의 내용을 구성한 저자, 입장이 표명되는 주역의 지위를 모두 화자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항상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이 구성한 말로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관계 설정의 전환(footing shift)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말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화자이지만, 말의 내용을 구성한 저자와 의견이 표명되고 있는 주역은 제삼자이다(유현빈, 2022, pp. 212-213). Goffman(1981)이 나열한 관계 설정의 특성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였다(p. 128)

1. 참여자의 정렬, 입장, 자세 또는 투사된(projected) 자아를 이슈로 한다.
... ..
3. 전체적인 입장 변화부터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미묘한 어조 변화까지 연속체를 이룬다.
4. 화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코드스위칭이 관련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어도 언어학자가 연구하는 소리 표지(음 높낮이, 볼륨, 리듬, 강세, 음색)가 관련이 있다.
5. "높은 수준" 단계 또는 상호작용 에피소드의 괄호화(bracketing)가 일반적으로 포함되며, 새로운 관계 설정은 경계 역할을 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두 에피소드의 완충 역할을 한다.

프레임이란 대화참여자들이 해당 상호작용을 농담, 친교, 논쟁과 같은 상황 중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관계 설정이란 프레임을 구성해 나가기 위한 행위의 일종으로 첫째, 누가, 둘째, 어떤 사람이 구성한 내용을, 셋째, 누구를 대표하거나 대변하기 위해 말하는가를 분석하는 개념이다. 고객과 사담을 나누던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면, 프레임도 친교에서 판매로 바뀌는 것처럼,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는가, 즉 관계 설정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상대와의 상호작용 변화인 프레임 변화로 이어진다(이진현, 2023, p. 126). Goffman은 관계 설정 개념을 정렬의 변화, 코드스위칭, 발화의 프레임만들기, 다양한 에피소드의 범주화, 진지한 대화인지 농담인지를 알리는 “키잉(keyings)⁸⁾”, 역할-거리의 표시 등 다양한 개

8) Goffman의 사회학에서 참여자에게 상호작용의 의미를 알리는 행동이나 발화를 의미한다(“an action or utterance that signals the meaning of interaction to participants”)(Weblio).

넘과 연관 짓기도 한다(Sidnell, 2009, p. 140). ST에서 인용표현생략이 사용된 대화문은 관계 설정의 변화, 프레임의 변화와 함께 대화참여자간 사회적 거리의 근접성을 나타내는데, 이때 인용표현생략은 언어적 장치로서 ‘친근’톤의 변화를 알리는 표지 역할을 수행한다.

작가는 ST에서 인용표현생략을 사용하여 극적 효과를 생성하고, 관계 설정의 변화를 통해서 프레임의 변화와 대화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인용표현생략과 관계 설정에 기반하여 ST에서 인용표현생략의 사용과 프레임 변화, 대화톤의 변화를 통해 작가의 문체 특성을 파악한다. 2) TT에서 ST와 상응하여 번역된 인용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번역가의 번역 특성을 파악한다. 3) 1)과 2)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번역가가 작가의 문체 특성을 적확하게 전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의 요점은 번역가가 ST의 인용표현과 프레임 변화, 대화톤 변화를 고려하면서, TT에서 대응 표현을 적절하게 번역하였는지 여부이다.

3. ST 및 TT 분석

3.1 ST, TT 소개 및 분석 방향

본고에서 ST로 다루는 『The Old Man and the Sea』는 Hemingway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Hemingway 사후 50년을 맞아 2012년 저작권이 풀리면서 국내에서 Hemingway 책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그중 『노인과 바다』가 인기작이었다. 2012년에 번역된 것만 5종에 이르고 김옥동 번역은 1만 부가 판매되었다. 김옥동의 번역본은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적 최근의 번역서에 속한다. 1959년 황찬호, 1964년 정병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김병철(1967)의 번역인데, 이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대부분 다른 번역에서 그대로 나타날 정도로 그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1970년대에 나온 번역들은 김병철의 영향으로 비교적 고른 수준을 보인다(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영번단], 2005, p. 163). 1980년대의 번역도 70년대의

번역과 별 차이가 없고 김병철의 번역수준을 뛰어넘는 번역을 찾기 어렵고, 1990년대와 2000년에 출간된 번역들은 오히려 70~80년대 번역보다 충실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영번단, 2005, p. 163). 본고에서는 ST에 대한 대표적 TT인 김옥동 번역본과 김병철 번역본을 분석텍스트로 선택하였다.

ST에 등장하는 대화문⁹⁾을 분석을 위한 언어데이터로 사용하며, 각각의 대화문에서는 해당 인용표현과 인용문을 분석한다. 인용표현은 일반적으로 화자를 표시하는 주어와 인용문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반영하는 인용동사로 구성되며, 인용문은 인용부호 안에 있는 문장을 말한다. 또한 인용문만 있고 인용표현이 없는 대화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생략으로 보지 않고, Mathis와 Yule(1994)의 이론에 따라 인용표현생략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품에서 출현하는 순서에 따라 ST의 대화문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대화문1은 ST의 분석대상 대화문 중 가장 처음 나타나는 대화문을 의미한다. ST 전체에서 대화문은 1번에서 189번까지 있고 총 9개의 발화사건(speech event)으로 분류하였다. 각 발화사건은 대화참여자, 대화의 주제, 대화 발생의 장소, 시점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텍스트 상으로는 대화문들의 집합이며, 각 발화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분량의 지문이 경계를 이룬다. 각 발화사건을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해당 프레임의 대화문에서 사용된 인용표현을 ST-TT1-TT2 사이에 비교하여, 프레임별로 대화문에 사용된 인용표현생략을 기준으로 대화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화톤의 변화에 기반하여 번역가가 작가의 문체를 적절하게 전달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발화사건 1, 5, 6, 7, 9는 대화문의 개수(각각 10개, 11개, 4개, 9개, 4개)와 인용표현생략 사용(각각 3회, 2회, 0회, 4회, 1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표기 및 논의 상의 편의를 위해서 ‘대화문’을 D로 표시하기도 하였고, 예시문의 텍스트에서 인용표현생략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기호 \emptyset 를 사용하였다. 또한 간결한 표 작성을 위해서, 각 표에서 ST, TT1, TT2에 사용된 인용표현을 표시할 경우, 일반 인용표현을 ‘I’,

9) 대화문이지만 독백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인용문은 제외하였으며, 화자-청자 간의 대면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전달하는 대화문에 국한하였다.

인용표현생략을 ‘0’으로 표시하였다.

3.2 발화사건2(대화문11-44)

3.2.1 ST 분석

노인의 집으로 어구를 운반하는 도중에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한다. 소년이 내일 고기잡이 때 노인이 사용할 정어리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노인은 거절한다. 소년의 제안이 반복되지만, 노인은 계속 거절한다(프레임1, D11-16, 주제: 소년의 정어리 제안). 이 부분의 대화는 인접대귀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년이 5살 때 처음 노인의 배를 타고, 함께 고기잡이했던 일을 회상한다(프레임2, D17-22, 주제: 소년이 노인의 배에 처음 승선한 기억). 과거일의 회상으로 직시 시공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테라스에서 노인의 고기잡이배로 이동한다. 소년이 다시 정어리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후 미끼를 두고 협상하다가 미끼 두 개로 합의한다(프레임3, D23-30, 주제: 소년의 제안에 대한 합의). 몇 차례 거절하다가 노인은 드디어 미끼 두 개를 받기로 동의한다. 이 프레임 전체가 인접대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긴 사양과 우회적인 협의를 거쳐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노인과 소년이 서로 배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년이 노인에게 내일 고기잡이 계획을 물어보고, 도와줄 방안을 제안하지만 노인이 거절한다(프레임4, D31-44, 주제: 고기잡이를 도우려는 소년의 제안과 노인의 거절). 여기서는 계획을 협의하는 동료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프레임3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접대귀 형식이지만 중간에 소년이 타는 배 주인의 시력 이야기, 노인의 고기잡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삽입된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 등 인접대귀가 몇 차례가 다시 나타나면서, 비록 제안과 거절이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발화사건2는 4개의 프레임과 D11-44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표현생략은 총 19회 사용되었고, 전체 대화문 중 인용표현생략 사용비율은 56%이다. 프레임2의 대화는 프레임1에서의 거절 직후, 그리고 프레임4의 대화는 프레임3에서의 미끼 제공을 두고 노인과 소년의 협상 직후에 발생했다. 제안-거절, 협상 후 수락이라는 대립과정을 거쳤지만, 프레임2, 4는 노인과 소년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잘 전달한다. 대화형식면에서 소년의 제안에 대한 노인의

비선호적 반응(dispreferred response) 발화¹⁰⁾와 함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완곡한 거절 형식의 발화나 다른 대화 주제의 삽입이 발견된다. 결국 인용표현생략의 연속회수와 상대적 사용빈도가 높은 프레임2, 4는 프레임1, 3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¹¹⁾. 발화사건2를 정리하면 화자간 사회적 거리¹²⁾는 프레임1에서 프레임4까지 0.50 → 0.83 → 0.38 → 0.57로 바뀌었으며, 발화사건2 전체의 사회적 거리는 0.56(인용표현생략 19개, 일반 인용표현 15개)이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프레임의 대화톤도 친근(+) → 친근(+) → 친근(-) → 친근(+)으로 변화하였고 전체 대화톤은 ‘친근(+)’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값과 비례관계에 있는 인용표현생략의 사용 빈도와 대화톤이 병행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며, 인용표현생략은 관계 설정 및 대화톤 변화를 알리는 표지 역할을 수행한다.

3.2.2 ST-TT 비교 분석

다음 표 1은 발화사건2에서 프레임-대화문별로 ST에 사용된 인용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TT1, TT2의 인용표현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1
발화사건2, ST-TT1-TT2 인용표현 비교

프레임	1			2		3				
D	11-12	13-15	16	17-21	22	23-25	26	27	28	29-30
ST, TT1, TT2	1,1,1	0,0,0	1,1,0	0,0,0	1,1,0	0,0,0	1,0,0	1,1,0	1,1,1	1,1,0
프레임	4									
D	31	32	33	34	35	36	37-38	39	40-43	44
ST, TT1, TT2	1,1,0	1,1,1	0,0,0	1,1,0	0,0,0	1,1,1	0,0,0	1,1,0	0,0,0	1,1,0

I: 일반 인용표현 / 0: 인용표현생략 / D: 대화문

- 10) 비선호적 반응 발화는 ‘요청’에 대해 ‘승낙’이 아니라 ‘거절’과 같이 ‘주는 말’에 대한 선호되지 않는 ‘받는 말’이다.
- 11) 노인-소년은 프레임2에서 어부 선생-제자 관계였지만, 프레임3에서 미끼 제공을 두고 협상하는 협상자 관계이며, 프레임4에서 내일의 계획을 상의하는 동료어부 관계로 변한다.
- 12) 계산 공식: 사회적 거리=인용표현생략 빈도/(인용표현생략 빈도+일반 인용표현 빈도)

음영 표시된 부분 : TT1, TT2 중 최소 한 곳에서 변환이 발생한 경우

발화사건2에서 ST의 모든 인용표현생략 사용 대화문은 TT1과 TT2에서 모두 인용표현을 생략하여 ST의 문체를 적절하게 전달하였지만, ST의 일반 인용표현 사용 대화문 번역에서 TT1과 TT2는 전달하는 인용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D26-27의 예시이며, 각각의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D26은 ST에서는 인용동사 *said*가 있는 일반 인용표현을 사용하였으나, TT1과 TT2에서 모두 인용표현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2> 대화문26-27

ST: “One,” the old man said. His hope and his confidence had never gone. But now they were freshening as when the breeze rises.

“Two,” the boy said. (p. 13)

TT1: “한 마리면 충분해.” ㉠ 노인은 아직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미풍이 불어올 때처럼 희망과 자신감이 새롭게 솟구치고 있었다.

“그럼 두 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p. 13-14)

TT2: “내가 정 그렇다면 하나만 구해 오렴” ㉠
노인의 희망과 자신이 아주 꺼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산들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또다시 새로워진 것이었다.

“그럼 두 개만 갖다 드리겠어요” ㉠

소년도 영 무가내로 듣지 않는다. (p. 555)

발화사건2의 ST에 대한 TT의 번역을 살펴보면, D11-15, 17-21, 23-25, 28, 32-33, 35-38, 40-43은 ST가 인용표현생략이면, TT1, TT2에서도 인용표현을 생략했고, ST가 일반 인용표현이면, TT1, TT2에서도 모두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다. 일반 인용표현이 사용된 ST의 D16, 22, 26-27, 29-31, 34, 39, 44에 대해, TT1은 D26만 인용표현을 생략했고 나머지 대화문은 모두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고, TT2는 대응되는 모든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을 생략하였다. 표 1에 따르면, ST와 TT1은 일반 인용표현이 일치하지만, TT2는 D13-44까지 인용표현을 대부분 생략하였다. 인용표현생략은 관계 설정, 대화톤 변화의 표지 역할을 하는데, TT2처럼 인용표현이 전체적으로 생략되는

경우, 발화사건 전체가 동일한 관계 설정, 대화톤으로 변환된다. ST와 달리 TT2에서 인용표현생략이 30회 반복되므로, 사회적 거리가 0.88이 되며, 대화톤은 ‘친근(+)'으로 고정된다. 이처럼 TT2는 발화사건2 전체에 대해 동일한 톤을 유지하여 ST와 다른 대화톤을 전달하였다.

3.3 발화사건3(대화문45-71)

3.3.1 ST 분석

발화사건3은 3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프레임1의 범위는 D45-50이고, 주제는 친구 사이의 말놀이이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노인과 소년의 대화가 전개된다. 다음 <예시 3>은 프레임1의 대화문45-50의 예시로서 인용표현생략의 사용 위치를 \emptyset 로 표시했다.

<예시 3> 대화문 45-50

- ST: “What do you have to eat?” the boy asked.
 “A pot of yellow rice with fish. Do you want some?” \emptyset
 “No. I will eat at home. Do you want me to make the fire?” \emptyset
 “No. I will make it later on. Or I may eat the rice cold.” \emptyset
 “May I take the cast net?” \emptyset
 “Of course.” \emptyset (p. 16)

위 <예시 3>에서 소년이 노인에게 저녁거리를 물어보고 투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빈말을 주고받으며 말놀이를 한다. 두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여기서 말해진 것에 대한 화자의 관계(관계 설정)이 바뀌었다. 노인과 소년은 현재 말을 하는 주체와 전달되는 발화 내용을 구성한 저자의 지위를 갖지만, 어느 쪽도 거짓말에 대해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므로 주역은 아니다. 본 대화에 이어서 곧바로 *But they went through this fiction every day.*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매우 친근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프레임2의 범위는 D51-61이고, 주제는 노인의 신념이다. 다음은 프레임2에서 인용표현생략이 연속으로 가장 높은 빈도(7회)로 사용된 대화문 55-61이다. 인용표현생략의 사용 위치를 \emptyset 로 표시했다.

<예시 4> 대화문-55-61

ST: “I’ll be back when I have the sardines. I’ll keep yours and mine together on ice and we can share them in the morning. When I come back you can tell me about the baseball.”
 “The Yankees cannot lose.”
 “But I fear the Indians of Cleveland.”
 “Have faith in the Yankees my son. Think of the great DiMaggio.”
 “I fear both the Tigers of Detroit and the Indians of Cleveland.”
 “Be careful or you will fear even the Reds of Cincinnati and the White Sox of Chicago.”
 “You study it and tell me when I come back.” (p. 17)

위 <예시 4>에서 노인은 야구이야기를 하면서 양키즈팀과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에 대한 믿음을 주장한다. 이 프레임에서 노인은 소년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한다. Grice(1975)의 대화격률 중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¹³⁾에 따르면, 여기서 허구적인 저녁거리나 투망, 그리고 양키즈팀, 복권이야기 등은 참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 빈말, 말놀이, 상상, 신념의 투사에 해당하므로 격률을 위배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과 소년의 대화는 협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화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험과 인식, 즉 가까운 사회적 거리를 반영한다. 프레임3의 범위는 D62-71이고, 주제는 행운과 말놀이이다. 노인과 소년은 84일 연속 고기잡이에 실패한 날의 다음날 있을 출어를 기대하며, 끝자리가 85인 복권 구매에 대해 서로 빈말을 하는데, 이것은 내일의 행운에 대한 그들의 강한 믿음을 암시한다. 복권 이야기는 본 작품에서 이후 언급되지 않으므로, 노인과 소년은 빈말로 말놀이를 하는 것이다.

발화사건3에서 인용표현생략은 총 20회 사용되었다. 전체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생략의 구성비율은 74%이다. 발화사건3에서 ST에서 인용표현생략이 연속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된 곳은 프레임1의 대화문46-50(5회 연속), 프

13) 질의 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Grice, 1975, p. 46).

레이미2의 대화문55-61(7회 연속), 프레임3의 대화문64-68(5회 연속)이다. 발화사건3 내에서 프레임 변화에 따른 화자간 사회적 거리는 프레임1에서 프레임3까지 0.83 → 0.82 → 0.60으로 변하며, 발화사건3 전체의 사회적 거리는 0.74이다. 대화톤은 각각의 프레임과 발화사건 모두 친근(+)이다.

3.3.2 ST-TT 비교 분석

다음 <표 2>는 발화사건3에서 프레임별, 대화문별로 ST에 사용된 인용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TT1, TT2의 인용표현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2
발화사건3, ST-TT1-TT2 인용표현 비교

프레임	1		2				3					
D	45	46-50	51	52-53	54	55-61	62	63	64-68	69	70	71
ST, TT1, TT2	1,1,1	0,0,0	1,1,0	0,0,0	1,1,1	0,0,0	0,0,0	1,1,0	0,0,0	1,0,0	1,0,1	1,0,0

1: 일반 인용표현 / 0: 인용표현생략 / D: 대화문

음영 표시된 부분 : TT1, TT2 중 최소 한 곳에서 변화이 발생한 경우

발화사건3에서 ST의 모든 인용표현생략 사용 대화문은 TT1과 TT2에서 모두 인용표현을 생략하여 ST의 문체를 적절하게 전달하였지만, ST의 일반 인용표현 사용 대화문 번역에서 TT1과 TT2는 전달하는 인용표현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D69-70의 예시이며, 각각의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D69는 ST에서는 인용동사 *said*가 있는 일반 인용표현을 사용하였으나, TT1과 TT2에서 모두 인용표현이 생략되었지만, D70은 ST에서 인용동사 *said*가 사용되었는데, TT1은 인용표현생략, TT2는 ‘맞장구를 친다’로 바뀌었다.

<예시 5> 대화문69-70

ST: “Keep warm old man,” the boy said. “Remember we are in September.”
 “The month when the great fish come,” the old man said. “Anyone can be a fisherman in May.” (p. 18)

TT1: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9월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절이야. 5월이라면 누구든 어부행세를 할 수 있지만 말이다.” g (p. 19)

TT2: “몸이나 따뜻하게 해 두세요. 九월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g

“큰 고기가 오는 계절이렸다” 노인도 맞장구를 친다.

“五월달에는 누구나 다 어부가 될 수 있고” (p. 558)

<표 2>에서 프레임1의 D45-50, 프레임2의 52-61, 프레임3의 D62, 64-68은 ST가 인용표현생략이면, TT1, TT2에서도 인용표현을 생략했고, ST가 일반 인용표현이면, TT1, TT2에서도 모두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다. 한편 일반 인용표현이 사용된 ST의 D51, 63, 69-71에 대해, TT1에서는 D51, 63을 일반 인용표현으로, D69-71은 인용표현을 생략하여 전달하였고, TT2에서는 D51, 63, 69, 71은 인용표현을 생략하였고, D70만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다. ST와 TT1은 일반 인용표현이 일치하지만, TT2는 D46-69까지 인용표현을 대부분 생략하였다. ST, TT1, TT2를 비교하면, TT1은 ST D69-71의 일반 인용표현을 인용표현생략으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대화문들은 같은 일반 인용표현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TT2는 ST D51, 63, 69, 71의 일반 인용표현까지 인용표현생략으로 번역하면서 TT2 내에서 인용표현생략의 사용빈도가 ST보다 더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친근(+)'의 톤을 전달하였지만 프레임1, 2, 3 사이에서 화제 전환부를 표시하는 표지 역할을 하는 일반 인용표현마저 인용표현생략으로 변환함으로써, ST의 문체 전달에 대해 주관적으로 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발화사건4(대화문72-129)

3.4.1 ST 분석

발화사건4는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임1의 범위는 D72-94 이고, 주제는 식전 대화와 노인의 빈말이다. 소년은 식사거리를 가지고 노인의 집을 다시 방문한다. 음식 제공자와 식사 관련 대화를 나눈다. 다음 <예시 6>은 이때의 대화로서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생략이 5회 사용되었다.

<예시 6> 대화문86-90

ST: “I think so.”
“I must give him something more than the belly meat then. He is very thoughtful for us.”
“He sent two beers.”
“I like the beer in cans best.”
“I know. But this is in bottles, Hatuey beer, and I take back the bottles.” (pp. 19-20)

<예시 6>은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 주인 마틴이 준 음식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노인은 음식과 병맥주를 얻어먹으면서 자신이 캔맥주를 가장 좋아한다고 너스레를 떠다. 노인의 빈말에서 저녁식사거리를 앞에 둔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프레임2의 범위는 D95-114이고, 주제는 노인의 투사와 공유경험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양키즈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 디크 시슬러 선수 등 야구와 관련된 긴 이야기가 진행된다. 다음 <예시 7>은 이때 노년과 소년이 나누는 대화로서 인용표현생략이 6회 사용되었다. 괄호 내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예시 7> 대화문98-103

ST: “That means nothing. The great DiMaggio is himself again.” (노인의 신념)
“They have other men on the team.”
“Naturally. But he makes the difference. In the other league, between Brooklyn and Philadelphia I must take Brooklyn. But then I think of Dick Sisler and those great drives in the old park.” (노인의 신념)
“There was nothing ever like them. He hits the longest ball I have ever seen.”
“Do you remember when he used to come to the Terrace? I wanted to take him fishing but I was too timid to ask him. Then I asked you to ask him and you were too timid.” (노인의 말, 지난 일에 대한 기억과 후회)
“I know. It was a great mistake. He might have gone with us. Then we would have that for all of our lives.” (소년의 공감, 지난 일

에 대한 후회) (pp. 21-22)

위 <예시 7>에서 양키즈팀과 디마지오 선수는 노인에게 자기의 신념, 불굴의 투지가 투사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노인과 소년은 인생의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다. 프레임3의 범위는 D115-120이고, 주제는 노인과 소년의 우정과 사랑이다. 소년이 노인을 어부로서 높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노인의 언급이 이어진다. 프레임4의 범위는 D121-129이고, 주제는 협력의 약속이다. 내일 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작별인사를 한다.

발화사건4는 D72-129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표현생략은 총 33회 사용되었다. 전체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생략의 구성비율은 57%이다. 발화사건4의 전체 대화톤은 ‘친근(+)’이고, 사회적 거리는 0.57이다. 프레임 순으로 화자간 사회적 거리는 프레임1에서 프레임4까지 0.48 → 0.65 → 0.67 → 0.56으로 변했고, 대화톤도 친근(-) → 친근(+) → 친근(+) → 친근(+)으로 변화하였다¹⁴⁾. 사회적 거리 값과 비례관계인 인용표현생략의 사용 빈도와 대화톤은 병행 관계에 있으며, 인용표현생략은 관계 설정 및 대화톤 변화를 알리는 표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인용표현생략이 사용된 대화문과 일반 인용표현이 사용된 대화문을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적절하게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화사건5와 6 사이에는 먼바다로 청새치를 잡으러 간 노인이 사투를 벌이며 대형 청새치를 잡은 일과 상어 떼의 반복적인 습격으로 노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청새치 잔해만을 싣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화자-청자 간의 상호대면에 의한 대화는 없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노인의 마음속 생각과 독백이 반복될 뿐으로, 본고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에서는 제외하였다.

14) Goffman(1981)에 따르면, 관계 설정의 변화가 실제 생활의 상호작용의 모든 복잡성을 수반한다. 즉 하나의 관계 설정이 종료되고 다른 관계 설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관계 설정이 즉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이를 보류하는 것이다. 두 발로 굳게 서 있는 중에 다른 발로 꺾꺾꺾 뛰듯이, 대화에서 관계 설정의 변화는 일상적이다(p. 155).

3.4.2 ST-TT 비교 분석

다음 <표 3>은 발화사건4에서 프레임별/대화문별로 ST에 사용된 인용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TT1, TT2의 인용표현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3
발화사건4, ST-TT1-TT2 인용표현 비교

프레임	1								
D	72-73	74	75-76	77-79	80-83	84-85	86-90	91	92
ST, TT1, TT2	1,1,1	1,1,0	0,0,0	1,1,0	0,0,0	1,1,0	0,0,0	1,1,0	1,1,1
프레임	1	2							
D	93-94	95-97	98-103	104	105-108	109	110	111-112	113-114
ST, TT1, TT2	1,1,0	1,1,0	0,0,0	1,1,0	0,0,0	1,1,0	0,0,0	1,1,0	0,0,0
프레임	3				4				
D	115-116	117	118-119	120	121-122	123-126	127-129		
ST, TT1, TT2	0,0,0	1,1,0	0,0,0	1,1,0	0,0,0	1,1,0	0,0,0		

I: 일반 인용표현 / 0: 인용표현생략 / D: 대화문

음영 표시된 부분 : TT1, TT2 중 최소 한 곳에서 변환이 발생한 경우

<표 3>에서 프레임1의 D72-73, 75-76, 80-83, 86-90, 92, 프레임2의 D98-103, 105-108, 110, 113-114, 프레임3의 D115-116, 118-119, 프레임4의 D121-122, 127-129에 대해, TT1, TT2는 ST의 인용표현을 변환없이 적절하게 전달했다. 한편 프레임1의 D74, 77-79, 84-85, 91, 93-94, 프레임2의 D95-97, 104, 109, 111-112, 프레임3의 117, 120, 프레임4의 123-126에 대해서는, ST가 모두 일반 인용표현인데 TT1은 모두 일반 인용표현으로, TT2는 인용표현을 모두 생략하여 전달했다. 즉, 발화사건4에서 ST와 TT1은 모든 인용표현이 일치하지만, TT2는 D72-73, 92에서만 일반 인용표현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인용표현을 모두 생략했다. 발화사건4의 ST, TT1, TT2를 비교하면, TT1은 ST과 모든 대화문의 인용표현에 대해 상응하는 표현으로 적절히 전달하였지만, TT2는 ST D72, 73, 92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을 생략하여 전달하였다. ST는 발화사건4 전체적으로 관계 설정 및 대화톤의 변화를 반복하지만, TT2는 발화사건4 전체적으로 일관된 관계 설정 및 대화톤을 유지하였다.

3.5 발화사건8(대화문154-185)

3.5.1 ST 분석

발화사건8은 4개의 프레임으로 구별된다. 프레임1은 D154-162로 구성되며, 주제는 소년의 위로와 두 사람의 동료 어부의식이다. 다음 <예시 8>은 프레임1에서 인용표현생략이 6회 연속되는 대화문이다. 괄호 내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예시 8> 대화문155-162

- ST: “They beat me, Manolin,” he said. “They truly beat me.” (노인의 낙심)
 “He didn’t beat you. Not the fish.” ø (소년의 위로)
 “No. Truly. It was afterwards.” ø (위로로 인한 정신적 회복)
 “Pedrico is looking after the skiff and the gear. what do you want done with the head?” ø (소년의 연기/잔해를 전리품처럼 배분 문제를 물어봄)
 “Let Pedrico chop it up to use in fish traps.” ø (노인의 맞장구-호흡 일치)
 “And the spear?” ø (다시 소년의 맞장구-호흡 일치)
 “You keep it if you want it.” ø
 “I want it,” the boy said. “Now we must make our plans about the other things.” (소년의 제안/소년은 노인의 동역자) (p. 124)

위 <예시 8>에서 노인은 지난 출어에서 자신이 패배했다고 낙심하지만, 소년은 청새치가 아니라 상어 떼에게 졌다고 그를 위로한다. 페드리코가 노인의 배를 정리하고 있다고 소년이 알려주고, 노인은 청새치 잔해, 머리와 주둥이의 배분을 소년과 이야기한다. 프레임2에서 소년은 노인에 대한 그간의 해안경비대 등의 수색상황을 전달한 후, 자기가 탄 배의 고기잡이 성과를 말한다. 노인은 소년이 보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소년은 노인을 보살피는 유일한 존재이다. 프레임3은 소년이 노인과 함께 출어할 것을 제안하나, 노인은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다음 출어를 위한 어구 준비에 대해 소년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다음 출어준비를 위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소년의 제안에 대한 노인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소년 가족의 반대의사를

부연하는 등 마치 부모처럼 배려하며 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에서 말한다. 프레임1에서 소년은 돌보미이고 노인은 그 대상이었지만, 프레임3에서 노인은 소년의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를 배려하는 입장이 되므로 관계 설정과 프레임이 바뀐 것이다. 여기서도 인용표현생략이 언어적 실마리로서 관계 설정과 대화톤의 변화를 알려준다. 프레임4에서 소년은 노인에게 속히 회복하라고 말해주고, 노인에게 필요한 셔츠, 식사거리, 신문, 약을 가져오기로 한다. 노인은 소년에게 페드리코에게 청새치 머리를 주도록 다시 부탁한다. 소년은 노인에게 위로자이고 정보제공자이고 협력자이고 돌도 없는 가족이다. 이 프레임에는 인접대귀가 다수 사용되었다. 요청-수락이 반복(D177-178, 184-185)되고, 질문-답변이 반복되고, D180-183에서는 요청-수락의 인접대귀(D180, 183) 안에 질문-답변의 인접대귀(D181-182)가 내포되어 있다.

발화사건8에서 인용표현생략은 총 21회 나타난다. 전체 대화문에서 인용표현생략의 구성비율은 66%이다. 화자 간 사회적 거리는 프레임1에서 프레임4까지 0.67 → 0.67 → 0.88 → 0.44로 변했고, 전체의 사회적 거리는 0.66이다. 발화사건8의 프레임 분석에 따르면, 프레임1-4의 대화톤이 ‘친근(+)' → ‘친근(+)' → ‘친근(+)' → ‘친근(-)'으로 변화하였고, 전체의 대화톤은 ‘친근(+)'이다.

3.5.2 ST-TT 비교 분석

다음 <표 4>는 발화사건8에서 프레임별/대화문별로 ST에 사용된 인용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TT1, TT2의 인용표현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4
발화사건8, ST-TT1-TT2 인용표현 비교

프레임	1				2				
D	154	155	156-161	162	163-164	165	166	167-168	
ST, TT1, TT2	1,1,1	1,1,0	0,0,0	1,1,0	0,0,0	1,1,1	1,1,0	0,0,0	
프레임	3				4				
D	169-170	171	172-176	177	178	179-180	181	182-183	184-185
ST, TT1, TT2	0,0,0	1,1,0	0,0,0	1,1,0	0,0,0	1,1,0	0,0,0	1,1,0	0,0,0

1: 일반 인용표현 / 0: 인용표현생략 / D: 대화문

음영 표시된 부분 : TT1, TT2 중 최소 한 곳에서 변화이 발생한 경우

발화사건8은 D154-185로 구성된다. 이 사건의 ST에 대한 TT의 번역을 살펴보면, D154, 156-161, 163-165, 167-170, 172-176, 178, 181, 184-185는 ST가 인용표현생략이면, TT1, TT2에서도 인용표현을 생략했고, ST가 일반 인용표현이면, TT1, TT2에서도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다. 한편 일반 인용표현이 사용된 ST의 D155, 162, 166, 171, 177, 179-180, 182-183에 대해, TT1에서는 모두 일반 인용표현으로 전달하였고, TT2에서는 모두 인용표현을 생략하였다. 발화사건8은 인용표현생략이 21회, 일반 인용표현이 11회 사용되므로 인용표현생략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65%). <표 4>에 따르면, ST와 TT1은 인용표현생략과 일반 인용표현이 모두 일치하지만, TT2는 D154, 165 외에는 ST와 대응하는 인용표현이 모두 생략된 인용표현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TT2는 발화사건 전체적으로 극적 효과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ST에서 대화톤이 ‘친근(+)’에서 “친근(-)”로 변하는 데 반해, TT2 번역가는 개입을 통해 ‘친근(+)’ 톤을 발화사건8 전체로 확장하여 TT 독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3.6 분석 결과 정리

ST에서 인용표현생략은 관계 설정 및 대화톤 변화의 표지로서 사용되었다. ST 대화문의 인용표현생략에 대해 TT1 및 TT2 모두 인용표현을 생략하여 작가의 문체를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ST에 사용된 일반 인용표현의 경우, TT1은 대부분 같은 일반 인용표현으로 처리했고, 예외적으로 발화사건2-3에서 총 3회에 걸쳐 인용표현을 생략했다. 이에 대해 TT2에서는 발화사건1-5, 7에서 모두 56회에 걸쳐서 인용표현을 생략하였다. 요약하자면, 모든 발화사건에서 ST의 인용표현생략은 TT1, TT2에서 변환없이 인용표현의 생략으로 처리되었다. ST의 일반 인용표현의 경우 TT1은 이를 충실하게 전달하였지만, TT2는 번역가가 개입하여 인용표현의 생략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ST에서 대화문 수는 총 189개인데, 그 가운데 인용표현생략 사용 대화문은 총 103개(54.5%)이고, 일반 인용표현 사용 대화문은 총 86개(45.5%)로, 전체적으로 인용표현생략 사용 대화문 빈도가 더 높다. ST의 일반 인용표현을 TT에서 생략하여 번역한 변환율이 TT1은 4.7%(4회 변환)로 매우 낮는데 비해, TT2는 65.1%(56회)로 매우 높다.

작가가 ST에서 관계 설정과 대화톤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인용표현생략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점에 주목하여, 번역가도 작가의 문체를 TT 독자에게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용표현생략은 인용표현을 생략하고, 일반 인용표현은 상응하는 일반 인용표현으로 번역하는 번역 전략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분석대상 언어데이터 D1-189 가운데 ST의 모든 인용표현생략은 TT1, TT2에서 적절하게 번역되었으나, 인용표현생략이 아닌 일반 인용표현의 경우, TT1 번역가는 대부분 일반 인용표현으로 적확하게 번역했지만, TT2 번역가는 ST의 일반 인용표현에 대해 번역본 전체에 걸쳐서 인용표현생략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ST 작가가 관계 설정 변화와 대화톤 변화를 통해 자신의 문체를 표현했는데, 번역가는 대응하는 표현의 번역에서 관계 설정 유지와 대화톤의 유지를 통해서 작가의 문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결론

번역가는 ST를 TT 독자에게 전달할 때 명시적으로 TT를 표현해야 하지만, TT를 통해 작가의 문체를 독자에게 적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본고는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대화문의 인용표현생략이 대화참여자 간에 말해진 것에 대한 관계 설정과 대화 톤이 변화하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언어적 관점에서 인용표현생략, 문학적 관점에서 대화톤,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관계 설정과 프레임 개념에 기반하여, ST의 인용표현, 즉 인용표현생략이나 일반적인 인용표현을 번역가가 TT에서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전체 대화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번역가가 ST의 인용표현생략을 TT에서 일반 인용표현으로 번역하거나, ST의 일반 인용표현을 TT에서 인용표현생략으로 변환하여 번역한다면, ST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설정의 변화, 프레임의 변화 및 대화톤의 변화를 ST에 접근하지 못하는 독자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 시에 작가의 문체를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ST의 표현이 전하는 문체를 깊이

분석해야 한다. 본고는 문학번역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문의 인용표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강동희. (2023). 노한 문학 번역에서 나타난 생략과 환원의 양상 고찰: 문체와 번역 전략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24(1), 253-278.
- 김병철. (1967).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전집I. 휘문출판사.
- 김옥동. (2012). 노인과 바다. 민음사.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 이성범, 홍승진. (2009). 생략적 발화의 화용적 기능. *담화와 인지*, 16(1), 63-82.
- 이진현. (2023). 관계 설정(footing) 및 프레임 개념에 기반한 라이브 커머스 담화 분석 - 체현된 비대면 시청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30(2), 125-154.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per and Row.
- Goffman, E. (1981). *Forms of talk*.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 Semantics*, 3 (pp. 41-58). Academic Press.
-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19.
- Hemingway, E. (1932). *Death in the afternoon*. Scribner's Sons.
- Hemingway, E.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Scribner.
- Mathis, T., & Yule, G. (1994). Zero quotatives. *Discourse Processes*, 18(1), 63-76.
- Sidnell, J. (2009). Participation. In S. D'hondt, J. Ostman & J. Verschueren (Eds.), *The Pragmatics of interaction* (pp. 125-156). John Benjamins.

- Tannen, D. (1986). Introducing constructed dialogue in Greek and American conversational and literary narratives. In F. Coulmas (Ed.), *Direct & indirect speech* (pp. 311–332). Mouton.
- Yule, G., Mathis, T., & Hopkins, M. F. (1992). On reporting what was said. *ELT Journal* 46(3), 245-251.

<2차 자료>

- 김지영, 강현주. (2015). 한국어 중급 교재의 대화문에 나타난 비선호적 반응 발화의 구현 양상. *한국어교육*, 26(4), 39-58.
- 김해연. (2010). 문학작품 대화문의 대화분석적 접근. *언어연구*, 27(3), 535-556.
- 유현빈. (2022). 한국어 뉴스 인터뷰 대화에서 나타나는 관계 설정의 전환 (footing shift): 인터뷰어의 질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30(1), 211-237.
- Beegel, S. F. (1986). Hemingway's craft of omission: Four manuscript examples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https://www.proquest.com/docview/303517412/fulltextPDF/91AE4C145EB04B09PQ/1?accountid=10533&sourcetype=Dissertations%20&%20Theses>
- Holt, E. (2007). 'I'm eyeing your chop up mind': Reporting and enacting. In E. Holt & R. Cliff (Eds.), *Reporting talk: Reported speech in interaction* (pp. 47-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Phee, J. (2015, September 7). Omission.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5/09/14/omission>
- Weblio. (n.d.). Keying. In Weblio dictionary. Retrieved June 3, 2024, from <https://ejje.weblio.jp/content/keying>

Assessing translation style: A comparative analysis of quotatives in two Korean translations of *The Old Man and the Sea*

Sang Bon Koo (sangbonk@hanmail.net)

Independent Researcher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quotatives in two Korean translations of Ernest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Quotatives, which indicate shifts in conversational tone and footing between participants, are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 understand their impact on the narrative. For analytical clarity, they are categorized into zero quotatives and general quotatives. Moreover, each speech event is segmented into multiple frames, each potentially conveying a different conversational tone. The study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tire dialogue from both the original text and the two translations, highlighting how shifts occur in transl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ranslators should thoroughly grasp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original text and that a detailed analysis of quotatives can provide a novel approach to assessing literary translation.

Keywords: Zero quotatives; Erving Goffman's footing; literary style; tone of conversation; dialogue

키워드: 인용표현생략, 관계 설정, 문체, 대화톤, 대화문

구상본

독립연구자

sangbonk@hanmail.net

논문 투고일: 2024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4년 5월 30일

2차 심사 완료: 2024년 6월 9일

게재 확정: 2024년 6월 15일